

時論 독립운동가 유족회 최 중 규

3·1절을 되새기며



최 중 규 독립운동가 유족회

3·1절은 1919년 3월 1일 자주독립만세운동의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의 단결을 굳게 하여 국민의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해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여 제정된 기념일로 4대 국경일의 하나이다.

일명 기미독립만세운동(己未獨立萬世運動)은 한일 병합 뒤 일본인의 부당한 침략에 항거하는 의병열사들이 각지에서 독립운동에 나서자 당시 총독부에서는 강력한 무단정치를 감행하여 가혹한 탄압을 자행하는 한편 민족고유문화의 말살 경제적 지배의 철저화 우리 민족의 정당한 민족적 저항의 기반을 없애려고 하였다.

독립운동 지도자들은 중국 만주 소련 미국 등 해외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거나 혹은 지하조직에 의해 비밀리에 기회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러한 중 미국 대통령 윌슨(Wilson T.W)의 민족자결주의원칙이 발표되었다. 민족자결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원칙 14개 조항의 일부로 1918년 1월에 제기되었으며 윌슨이 구상하였던 민족자결주의 원칙은 연합국과 대결하였던 독일, 오스트리아, 터키 등에 속하여 있던 식민지에만 적용하여 하였고 이 원칙이 세계의 모든 피압박민족에게 하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여졌고 각기 자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여 독립을 요구하게 되었다.

우리의 민족 지도자들도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발표가 있자 이에 의거하여 우리 민족의 독립을 호소해 보고자 노력하던 중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중 29명이 서울 인사동에 있는 '태화관'에 모여 오후 2시를 기다리던중 최 린은 태화관 주인 안순환을 시켜 조선총독부에 전화를 걸어 민족대표 일동이 여기에서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고 축배를 들고 있다고 통고하여 하였다. 이 통고를 받은 일본 경찰대 80여명이 달려와 태화관을 포위하고 있을 때 민족대표들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한용운의 간단한 식사를 들고 이어 대한독립만세를 부른 다음 의연하게 일본 경찰에게 연행되었다.

한편, 파고다공원은 서울의 중등학교 이상의 남녀 학생 5천여명이 몰려와서 독립선언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후2시가 되자 한 청년이 단상으로 올라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다. 낭독이 거의 끝날 무렵 학생들은 모자를 하늘로 날리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그리고 종로쪽으로 몰려나와 시위행진에 들어갔다. 본래 독립선언식을 학생들과 민족대표 33인이 함께 파고다공원에서 열기로 되어 있었으나 학생들은 민족대표들을 기다렸다가 그대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대한독립만세를 부른 다음 거리로 나와 만세운동이 시작되었다.

3월 1일 오후2시를 기점으로 봉기된 만세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을 때 수원 제암리에서는 4월 15일 일본군 중위가 제암리 마을 사람에게 일탈 것이 있다고 속여 천도교와 기독교도 20명여명을 제암리 교회에 모이게 하고 사격을 가한뒤 증거를 없애기 위해 교회에 불을 지르는 끔찍한 만행을 하였다.

이때 교회안에서 죽은 사람이 22명, 뜰에서 죽은 사람이 6명이었다. 이렇듯 독립을 외치던 우리민족이 만세운동 기간중에 전국에서 집회 횡수가 1천542회, 집회 인원이 202만3천989명이고 사망자수가 7천509명이나 되며 부상자 수도 1만5천961명, 피검자 수는 4만6천948명 등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

우리 포천도 예외는 아니었다. 3월13일 포천공립보통학교에서 독립만세를 불렀고 영평공립보통학교에서도 시도하였으며 3월24일에는 영평면 영평리에서 1천여명과 소울면 송우리에서 6백여명이 만세를 부르다가 1명이 피검되었으며 3월29일에는 소울면 무봉리와 군내면 유교리에서 1천200여명이 만세를 부르다가 5명이 피검되고 3월30일에는 신북면 사무소 앞에서 일동, 이동, 영중, 신북면 주민 2천여명과 신북면 가재리와 소울면 송우리에서 2천여명이 만세를 부르다가 6명이 피검되었고 4월1일에는 일동면 기산리, 4월3일에는 신북면 삼정리, 이동면 장암리,노곡리에서, 4월4일에는 영북면 자일리 등지에서 1천300여명이 독립만세시위를 벌였다.

이러한 거족적인 독립만세운동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켜 한국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중국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을 하게 되었다.

또한 우리 한민족에 대한 끈질기고 강인한 독립투쟁정신을 고취하였을뿐 아니라 일제의 무단 통치 방법을 문화정책으로 바꾸게 하였으며 민족의식과 민족정신의 새로운 자각과 힘을 주어 교육의 진흥, 신 문예운동 산업운동을 통하여 민족자립의 기초를 다지게 하였으며 이 운동이 이어져 1945년 광복의 날이 오게 하였을 것이다.

민족의식과 민족정신의 새로운 자각으로 민족자립기초 다져야

공예 부흥의 비원이 서린 조종산 (下)



이 수 영 화현면 체육진흥협의회장

(지난호에 계속)

운악산성은 포천시 화현면 화현리 운악산 산중턱(해발고도 350~450m 일대)과 정상부에 세워진 석축산성으로, 기암절벽의 천연 지세를 절묘하게 활용한 성곽 형태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축성에 동원된 대다수의 군사와 부역장정이 이곳 포천(경성 및 양골현민) 출신임을 추정하게 한다.

산성 길이는 약 2.5km에 달하며 높이가 3m~0.5m의 겹성(二重城)인데, 상당 구간이 훼손 멸실되어 정확한 실체는 발굴이 진행되어야 규명될 것 같다. 운악산성은 신라말과 고려 초의 역사적 공백을 밝히는 중요한 단서이며, 독특한 형태를 갖춘 산성 모형으로 앞으로 많은 연구와 규명이 요구되는 중요 역사자료다.

이 지방의 대표적 향토사자라고 할 수 있는 <포천군읍지>에조차 운악산성의 기록이 없고,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등의 문헌에도 운악산성의 기록이 없다. 그리고 대부분의 조선 중·후기의 고문헌 및 사료에도 운악산성의 기록이 일체 누락된 것으로 추정하던데, 이미 이 시기엔 군사시설로서의 활용가치를 상실해 버리고 폐성이 되어버린 것 같다. 다만 영조 34년(1758년)에 이세욱(李世勳) 등이 편찬한 <경성지(堅城誌)>에 유일하게 운악산성과 연관된 두 가지 기록이 전해져오고 있다.

첫째로 산전초에 운악산은 포천현의 동쪽 25리에 있다. 즉 가평현동산의 서쪽에 있는 산이다. 산 꼭대기에 옛나라의 궁궐터가 있다고 기록했는데, 옛나라의 궁궐터라 한 곳이 아마도 현재 공예왕 대궐터라고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는 무지치포동 상단의 운악산성 내 평탄 지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로 충신조에 조득남(趙得男)은 본관이 한양 사람인데, 한천부원군 조운의 후손이다. 포천현의 동쪽 20리 운악산 아래 화성리(花城里)에서 태어나 성장하였다...중략...병자호란 때는 남한산성의 북문에서 힘을 다해 싸우다 죽었는데 인조 임금이 놀래 애도하면서 유포를 내려 시신을 써서 북문 아래에 매장토록 하였다. 난이 평정된 후 화성리(花城里)에 옮겨 장례 지냈다는 기록으로 보아 적어도 이 시기에는 운악산성을 화성으로 불렀음을 추할 수 있다.

따라서 병자호란을 전후한 시기나 <경성지>가 만들어지던 시기까지는 이 지방에서 토착지역민들이 운악산성을 화성(花城)이라고 부르며, 운악산 또한 향명으로 화산(花山)이라고도 불렀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 지방의 대표적인 방위문인이었던 불래산인 양사언의 시에 운악산을 이르기(天作高山麗巖方 / 芳名流傳小金剛 / 花峯崔崔參漢 / 積翠蒼蒼接大荒...이라고 했는데, 花峯崔崔參漢 같은 봉우리는 높고 솟아 은하수에 닿았고)에서 화성(花城)과 현재의 지명인 포천시 화현(花峴)면의 단서가 되는 부분이 보인다.

운악산은 이를 그대로 뾰족뾰족한 기암괴석의 봉우리가 구름을 뚫고 솟아 그 모습이 마치 서기를 품은 한 뼉기 향기로운 꽃과 같았다. 그래서 지명이 운악산이 된 것인데, 후일 자연발생적으로 화산(火山)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이런 예가 인근의 가평 화악산에도 있다. <대동여지도> <동여도> <가평군읍지> 등에는 화악산을 화악산(華嶽山)으로 기록된 데 비하여, <수진일용방> <팔도전도> <경기도지도첩> 등에는 화악산(花嶽山)으로 기록되어 화와 花는 지명에서 서로 통용했음을 입증하고 있다.

고대의 성은 수변(水邊)의 요로가 되는 언덕이나 주요 교통로를 이루는 산의 정상부나 고갯마루에 축조되었다. 그래서 고개를 의미하는 '재(峯-嶺-峯)으로도 표기'라는 말이 '성'이라는 의미까지도 뜻하게 되어 오늘날 '재 성(城)'이라 부르는 것이다. 따라서 '꽃성(花城)'과 '꽃재(花峯)'는 결국 같은 의미의 지명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일부 역사연구자들이 화현을 서과 부근에 있는 봉수라는 지명에 근거하여 '봉화'를 피우던 고개(峴)→火峴→花峴으로 주장하기도 하나, 운악산과 봉수대 지리

는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무리가 많은 주장이라고 하겠다. 오히려 '북' 앞으로 빠져나오거나 '솟은 땅'을 말하는 꽃(申)이 변음(역음화)되어 꽃이 되었다는 설(필자)은 문헌연구와 지형지세 관찰을 통해 규명해볼 만한 주장이다.

이 산성은 공예 세력과 왕권 세력이 포천 지방에서 상당기간 팽팽하게 대립한 역사를 증명해주는 흔적이다. 이런 사실을 증명해주는 분명한 기록이 <고려사> 권1 제1 태조에 전해지고 있다. 계미 6년(923년) 봄 신축일에 명지성(포천의 옛이름) 장군 성달이 그 아우 이달 서립과 함께 고려에 와서 항복하고 불었다(辛丑 命都城將軍 城達與其弟伊達瑞林來附)는 기록은 왕건이 공예를 축출하고 고려 태조로 등극하고서도 6년 동안이나 포천 고을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이 역사서에는 또 이런 기록이 있다. 정유일에 진각성경 유적방이 혁명(왕조교체) 당시에 여러 동료들은 당황하여 뿔뿔이 도망하였으나 그는 홀로 본성을 떠나지 않았고, 말은 바 창고는 조금도 손실이 없게 하였다고 하여 특별히 광평시랑의 벼슬을 주었다(丁酉以珍閣省卿 柳步良當革命之際 群僚皆奔 獨不離本省 所典倉庫 無所亡失 特授 廣平侍郎)는 기록으로 본다면 상당수의 호족과 성주가 권력교체의 쟁투에서 어정정한 입장을 취하거나 공예 편에 가담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 중 포천 영평과 연천 양주 일대의 여러 고을은 철원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워 철원에서 패주해온 일부 공예 세력과 합세하여 공예왕 부흥운동을 펼쳤으리라 추측된다.

운악산 주변에는 공예시대에 축성한 것으로 구전되는 명성산성, 보개산의 보가산성 등이 남아있다. 또 포천 지방과 연천 지방에 공예와 관련된 성터리 패주골, 향서받골, 아전골, 망봉, 공예왕굴, 강씨봉 등의 지명이 수없이 산재한 까닭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운악산성이 곧 공예왕의 피성이라는 주장에는 여러 정황 상 방증근거가 불명확해서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아마도 포천 지방을 지배했던 장군 성달이 축성한 성으로 보이며, 그가 이곳에서 공예왕의 잔존세력과 연합하여 상당기간동안 왕건에게 저항해 오고 대항하였던 것 같다. 이런 사실은 고려사절요와 고려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계미 6년(923년) 봄 3월 신축일

에 명지성 장군 성달이 그 아우 이달 서립과 함께 귀순하여 왔다(辛丑 命都城將軍 城達與其弟伊達瑞林來附)고려사 권 제1세가 제1태조와 계미 태조 6년(923년) 여름 6월에 신라에 명지성 장군 성달이 고려에 항복하였다(고려사절요 권1)는 기록이 대표적인 기록이다.

신라 후기에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몰락하여 내려간 중앙 귀족과 그 지방에서 성장한 토착적인 촌주(村主) 출신, 그리고 지방의 군사적인 무력을 가진 군진세력(軍鎭勢力) 등이 지방호족으로 대두하여 농민반란 등 혼란한 사회적 환경을 틈타 각지에서 봉기 융기하였다. 그래서 신라 하대의 호족들은 성주, 장군이라 지칭하면서 중앙의 정치기구를 모방한 독자적인 지배기구, 즉 관반제를 갖추고 지방사회를 통치하기까지 했는데, 북원의 초적두령 양길(梁吉), 양평의 승려 출신 함규(咸規), 하동의 호장(戶長) 출신 정도정(鄭道正), 목천의 백제 유망민 마유환, 풍양으로 추정되는 조맹(趙孟), 전라도 지방의 신라 군관 출신 견원(甄萱) 등이 대표적 세력이었으며, 특히 그중에서 강력한 세력을 이룬 것이 기원과 양길의 부하였다가 독립한 공예였다.

<고려사지리지>에 의하면 전기에는 수령이 파견된 주현이 불과 130개였는데 비해 수령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은 무려 374개나 되어 중앙 통치력이 지방까지 침투하지 못해 매우 불안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려는 호족연합에 의한 건국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국현제(郡縣制)는 신라 말 토착지력의 해이로 무너지고 사병을 거느린 호족들에 의하여 전국이 분절되었는데, 호족들의 항쟁 속에서 지배복속의 관계가 생겨 대호족은 중소 호족을 지배하게 되고, 이것이 더욱 진행되어 후삼국의 정립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그 지배복속의 관계는 가변적인 것이었고, 대·중·소 호족들은 엄연히 독자적 지배구역을 보유했다. 이런 상황은 왕건의 통일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고려는 초기에 호족들과 연합하여 정권을 유지하고 그들의 지배권을 인정하여 간접적으로 통치할 수밖에 없었다. 태조 23년(940년) 또는 고려 초라고 기록된 시기에 주현 명호(名號)의 개정과 함께 잔유(殘遺)를 부근 군현에 소속시킨 사실은 이들 호족들의 세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것이라 하겠다.

꽃샘은 자연과 인간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대자연의 선물에 정성을 듬뿍 담은 꽃샘종합 선물세트로 당신의 마음을 전하십시오

꽃샘벌꿀은 맑은 새벽이슬의 꽃향기를 정성껏 담은 자연그대로의 고농도 순수한 벌꿀입니다.

(주)꽃샘종합식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 240
TEL.031)541-9921(代) FAX.031)541-9933
소비자상담실 : 031)541-9922
대표이사 : 이상갑